

‘세계유산 山寺’에서의 하룻밤 눈 씻고, 귀 씻고, 마음도 씻는다

흔히 절로 부르는 사찰(寺刹)은 승려가 불상을 모시고 불도(佛道)를 닦으며 교법(教法)을 펴는 집이다. 도(道)를 얻고자 수행하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도량(道場)이라고도 하고, 승원·가람(승가람마) 등 수십 가지의 이름을 갖고 있다.

서기 4세기 우리 땅에 처음 유입된 불교는 종교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다. 국교로 융성했던 역사이자 전통예술의 보고(寶庫)다. 토착 신앙, 풍수와 만나 명산에 자리 잡은 한국의 사찰은 당대의 문화 그 자체이기도 하다. 산중에서 주변의 지형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자리 잡은 사찰들이 '산사(山寺), 한국의 산지승원'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다. 해남 대흥사, 양산 통도사, 영주 부석사, 보은 법주사가 그 주인공들이다. 우리 문화의 보물단지인 사찰이 세계의 유산으로 인정받기를 기원하는 여행길에 나섰다.

글 한미희 · 사진 전수영 기자





고졸한 작은 마을 같은 사찰



해탈문에서 바라본 대흥사 마당. 두륜산 형세가 누워 있는 부처님 모양이다. 오른쪽 두륜봉은 부처님의 머리 형상이고, 구름에 가린 가련봉과 고계봉은 살짝 주먹 쥐 한 손에 다른 손 검지를 넣은 지관인(智拳印)을 꼭 닮았다.

땅끝마을, 전라남도 해남으로 향했다. 서울에서 남쪽으로 달리는 길 내내 걷히지 않는 지독한 미세먼지로 시야는 갑갑하고 목이 따끔거렸다. 대흥사로 들어가는 두륜산 숲길이 시작되자마자 마법처럼 숨이 탁 트였다. 울창한 구림구곡(九林九曲)의 숲길을 지나며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그저 장관이다. 사찰의 시작점을 알리는 일주문을 지나 사찰로 들어가는 관문인 해탈문에 서면 탁 트인 대흥사 앞마당이 한눈에 들어온다. 한참을 숲길로 들어온 것을 잊을 만큼 널찍한 분지다. 초의선사가 만들었다는 굴곡 있는 연못 무염지가 보이고 낮은 돌담이 당우(堂宇)를 둘러싸고 있어 단정하고 소박하게 꾸며놓은 작은 마을 같은 느낌이다. 꽤나 큰 사찰인데도 산이 포근히 둘러싸고 있어 이득하다. 사찰을 지키는 사천왕문이 없는 이유도 북쪽의 월출산, 남쪽의 달마산, 동쪽의 천관산, 서쪽의 선은산이 대흥사를 감싸고 있는 풍수명당이기 때문이라 한다. 일찍이 이 터의 가치를 알아본 서산대사는 '삼재가 미치지 못할 곳, 만 년 동안 훼손되지 않는 땅'이라고 했다. 묘향산에서 입적하며 의발(衣鉢, 가사와 공양 그릇)은 해남

대흥사에 두라고 한 이유다. 가람배치(사찰의 건물 배치)도 독특하다. 해탈문을 들어서면 정면에 있어야 할 대웅전이 보이지 않는다. 김광수 문화유산해설사는 손가락으로 멀리 두륜산 봉우리들을 가리키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었다. 부처님의 머리, 가슴 앞에서 모은 손, 부처님의 발이 그려진다. 누워있는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다. 불자들은 해탈문 앞에서 이 비로자나 와불상을 향해 참배한다. 왼쪽으로 몸을 돌려 대웅보전으로 가는 길에 서 있는 느티나무 연리근(連理根)은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장소다. 가까이 자라는 나무가 만나 합쳐지는 것을 '연리'라고 하는데, 가지가 만나면 연리지, 줄기가 만나면 연리목, 뿌리가 만나면 연리근이라 한다. 오랜 세월 함께 햇볕과 바람을 맞으며 두 몸이 하나가 된다 하여 '사랑나무'라 일컬으며 부부와 연인의 사랑을 기원한다. 당 현종과 양귀비의 사랑을 소재로 한 백거이의 시 '장한가'에서도 "땅에서 만난다면 연리지가 되기를 원하네(在地願爲連理枝)"라는 구절에 등장한다.



1 새벽 예불이 시작되는 시간 대웅보전으로 가는 침계루 앞



2 대웅보전 3 대웅보전의 편액은 원교 이광사의 글씨다. 4 대웅보전 왼편 백설당에 걸린 추사 김정희의 글씨 5 당우에 낮은 담장을 둘러 아늑한 느낌이다.





1 천불전 전경 2 경주의 옥석으로 조각한 천불. 6년에 걸쳐 완성한 천불을 세 척의 배에 싣고 해남으로 가던 중 울산진에서 한 척이 풍랑을 만나 표류하다 일본에 닿았다. 배를 발견한 일본인들은 옥불을 봉안할 절을 짓기로 논의했는데 이들의 꿈에 이 불상이 나타나 '조선 해남 대운사(대흥사의 옛 이름)로 가는 중'이라고 하자 어쩔 수 없이 돌려보내며 불상에 일(日)자를 새겨 보냈다는 설화가 전해 내려온다.



조선 명필의 글씨들

금당전을 건너면 대웅보전(大雄寶殿)이다. 대웅보전이 사찰의 한기운데가 아닌 북쪽에 물러서 있는 것도, 사찰 규모와 비교하면 대웅보전 마당이 작은 것도 여느 사찰과는 다른 점이다.

대웅보전이 있는 북원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조선 후기 쌍벽을 이루는 두 명필, 원교 이광사(1705~1777)와 추사 김정희(1786~1856)의 글씨다. '대웅보전'이 이광사의 글씨, 왼편 요사채인 백설당에 걸린 '무량수각'(无量壽閣)이 추사의 글씨다. 두 명필의 글씨가 나란히 걸리게 된 일화도 유명하다.

원도군 신지도에 유배 온 이광사는 대흥사의 대웅보전과 침계루, 천불전의 편액을 썼다. 이광사의 '원교체'는 18세기 조선의 고유서체인 '동국진체'를 완성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추사는 원교체를 무시하고 깎아내렸다. 제주도에 유배 가는 길에 친구인 초의선사가 있는 대흥사에 들른 추사는 이광사의 글씨를 보고는 '저것도 글씨냐, 당장 떼어버려라' 하고는 자신의 글씨를 대신 걸게 했다. 8년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서울로 가는 길에 다시 대흥사에 들른 추사는 과거 자신의 교만을 인정하며 원교의 편액을 다시 걸라 했다 한다.

호남의 명필 창암 이삼만(1770~1845)은 대흥사 한기운데 남원의 출입문인 가허루(駕虛樓)의 현판 글씨를 썼다. 평생을 초야에 묻혀 글씨만 쓴 창암은 유배길에 오른 추사 앞에 자신의 글씨를 내놓는다. 16살이나 어린 추사는 '시골에서 밥은 먹겠다'며 창암을 모욕했다. 창암은 분노하는 제자들을 달래며 '글씨를 아는지는 몰라도 묵향은 모르는 사람'이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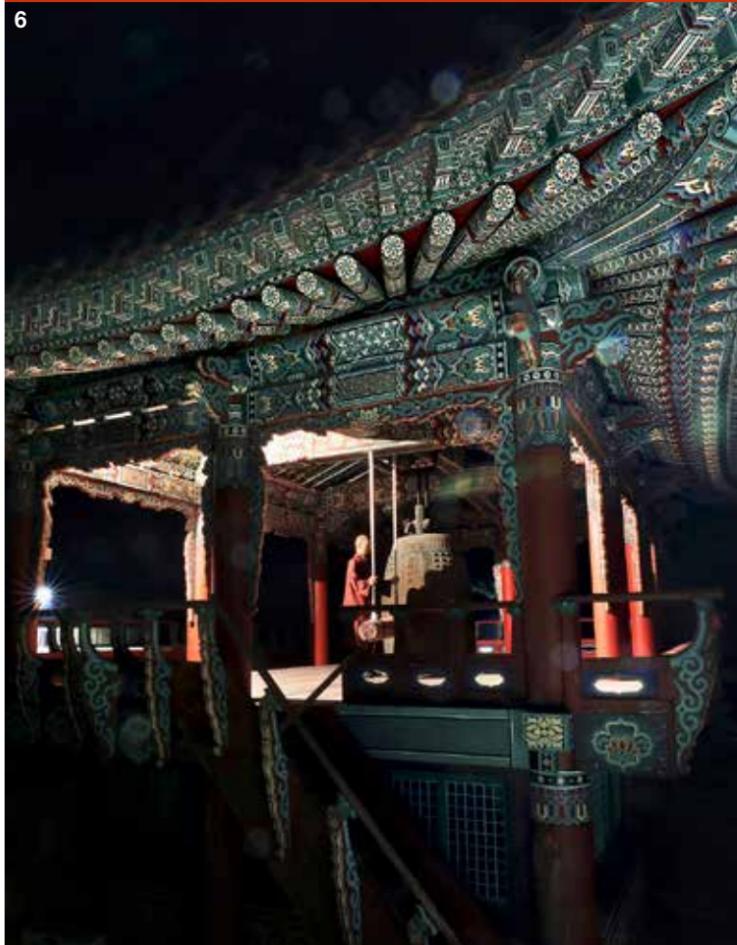
한다. 유배 생활 동안 깨달은 추사는 창암을 찾아 사과하려 했으나, 창암이 세상을 떠난 뒤였다. 추사는 애통해 하며 창암의 묘비문을 남겼다.

사찰 안의 유교 사당 '표충사'

사찰 남쪽 별원에는 서산대사와 그의 제자인 사명대사, 처영대사를 기리는 유교 사당인 표충사(表忠祠)가 있다. 편액은 정조의 친필이다. 임진왜란 당시 73세의 나이로 전국 승군 5천 명을 통솔하는 팔도도총섭이 된 서산대사는 평양성을 탈환하는 데 큰 공을 세우고, 왕이 환도한 뒤 묘향산으로 돌아가 임진왜란이 끝나고 6년 뒤 입적했다. 서산대사의 유족에 따라 선조가 하사한 금란가사(법)와 발우(공양 그릇), 염주를 비롯해 법라(소라 껍데기로 만든 군악기), 호패 등의 유물이 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창건 시점도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대흥사는 서산대사의 유족으로 주목받은 이후 13명의 대중사와 13명의 대강사를 배출한 큰 절이 됐다. 일주문에 새긴 '선림교해만화도량'(禪林敎海滿華道場·참선과 가르침이 활짝 핀 도량)이 그 뜻이다. 일주문을 지나자마자 보이는 부도전에는 스님의 사리를 봉안한 탑인 부도와 비문을 새긴 탑비 80여 기가 즐비하다. 이중 서산대사의 부도는 보물로 지정돼 있다. 정조의 왕명으로 봉행된 서산대제를 재현하고 있는 대흥사는 다시 찾아온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타고 올가를 묘향산 제향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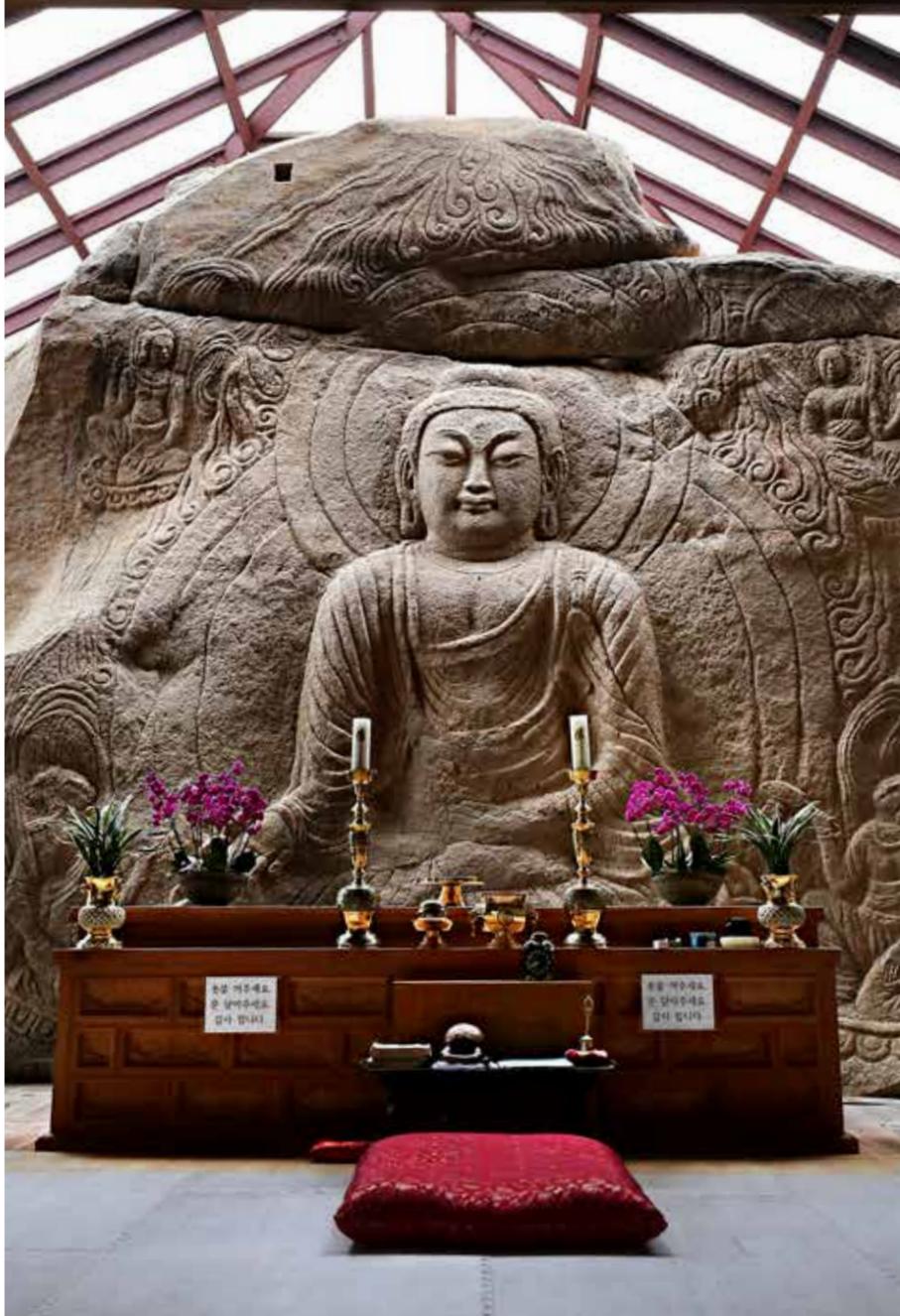


3 뿌리가 이어진 느티나무 연리근 4 표충사 편액, 정조의 글씨다. 5 초의선사 의순, 대흥사 13대 종사 중 한 사람으로, 다도를 중흥시켜 다성(茶聖)으로 불린다. 6 범종 치는 스님, 산사의 새벽을 깨운다.





1 마애여래좌상의 천인상. 둔중한 체구의 본존불과 달리 날렵하다. 2 북미륵암의 마애여래좌상



산사의 가장 고요한 시간

사찰을 한 바퀴 둘러보고 남원 가장 위쪽에 깔끔하게 지어진 템플스테이 숙소 심검당에 짐을 풀었다. 이른 저녁 공양을 마치고 나면 산 사이로 붉은 노을이 찾아오고 땅가미가 지는 동안 잠들기 전의 새 우는 소리와 종 치는 소리, 목탁 두드리는 소리, 나무 사이로 바람이 오가는 소리가 귀를 씻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마음이 짝 찰는 시간이다.

모두가 잠이 든 이른 새벽, 산사의 적막을 깨우는 것은 목탁 소리다. 목탁을 치는 스님이 산사를 돌며 대중과 산천초목을 깨우고, 이어 종소리가 들리면 예불이 시작된다. 아침 공양을 마치고 두륜산을 올랐다. 어느 때보다 깨끗한 산의 새벽 공기는 놓치기 아깝다. 산은 높지 않지만 가파른 돌산이라 초심자라면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열심히 오르면 40분, 여유 있게 오르면 1시간이면 북미륵암에 도착한다. 샘물로 목을 축이고 기쁜 숨을 고른 뒤 용화전으로 들어갔다. 암벽에 조각된 후덕한 마애여래좌상(국보 제308호)을 마주하면 이른 아침부터 땀을 흘린 수고가 보상된다. 불자가 아니더라도 느껴지는 감흥이 있다.

0.6km만 더 가면 대흥사가 처음 시작된 곳이라는 만일암터에 하늘에서 쫓겨난 천동과 천녀가 불상을 조각하는 동안 해를 매달아 놓았다는 설화를 간직한 천년수가 있다. 수령 1천년이 넘는 이 느티나무는 올해 초 역사 속에 '전라도'라는 이름이 등장한 지 1천년이 된 해를 기념하는 '천년나무'로 지정됐다. 천년나무를 보러 가는 대신 부처님 손바닥 모양 같은 자연 암반 위에 세워진 동삼층석탑을 지나 널따란 바위 위에 앉았다. 산이 바다를 이루는 풍경이 내려다보인다. 김경숙 템플스테이 팀장이 안내한 명상 명당이다. 눈앞에서 안개가 흐르며 바로 옆 바위를 가렸다 드러낸다. 새소리를 배경 음악 삼아 언제까지고 앉아 있고 싶은 곳이다.



초의선사와 추사 김정희

이끼 낀 바위를 타고 내려와 길가에 잘 익은 산딸기를 따 먹으며 일지암으로 향했다. 서산대사와 함께 대흥사를 상징하는 초의선사가 지은 암자다. 이곳에서 초의선사는 차와 선은 하나라는 다선일미(茶禪一味) 사상을 담은 '동다송'(東茶頌)을 펴냈고, 다산 정약용, 추사 김정희와 차를 통해 교류했다. 추사는 초의에게 빨리 차를 보내달라고 조르는 편지를 자주 보냈고, 차에 보답하는 '명선'(茗禪)을 써서 남겼다. 연못에 돌을 쌓고 기둥을 세운 누마루나, 가운데 방 한 칸을 두고 사면에 툇마루를 두른 정자의 운치가 그만이다. 초의선사가 열반에 든 뒤 폐허가 됐다가 복원한 것이다. 초의선사의 다도 정신을 기리는 초의문화제가 매년 열린다.

등산로를 다 내려오면 표충사 뒤편 호젓한 곳에 스님들이 참선하는 선원으로 사용되는 대광명전 구역이다. 대광명전은 초의선사가 유배 중이던 추사의 방면과 축수를 위해 지은 전각이다. 동국선원의 편액은 추사의 글씨다. 이 조용한 선원을 찾는 관람객이 많아진 이유는 따로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곳이기 때문이다. 선원은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이지만, 문 대통령 당선 이후 문씨가 쇄도하면서 안거 기간을 제외하고 개방 중이다. 문 대통령이 묵었던 요사채 7번 방 앞에는 아예 안내문이 붙었다. 문 대통령은 대흥사에서 공부하던 시절 차를 배운 이후 차를 즐긴다고 밝힌 바 있다. 전통방식으로 소량 생산되는 대흥사 차는 청와대에 선물로 보내지기도 했다.

3 초의선사가 머문 일지암. 정자는 가운데 방 한 칸을 두고 사면에 툇마루를 뒀다. 오른쪽에 연못에 돌을 쌓아 세운 누마루의 기둥이 보인다. 4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고시를 준비한 동국선원 7번 선방





부처님 진신사리 모신 불보(佛寶) 사찰





피안교인 삼성반월교



일주문

경남 양산의 통도사로 향하는 길. 절 이름이 붙은 고속도로 나들목(IC)을 빠져나가면서부터 통도사의 규모와 사세(寺勢)가 짐작이 간다. 불가의 세 가지 보물 중 으뜸이라는 진신사리를 봉안한 사찰에, 수행과 교육 기관을 모두 갖춘 총림이니 능히 그럴 만하다고 수궁이 간다. 일주문 기둥 좌우의 '불지종가(佛之宗家) 국지대찰(國之大刹)'이란 글귀에서 다시 한 번 그 위세를 확인한다.

독을 품은 용 쫓아내고 세운 금강계단

통도사는 부처의 진신사리를 모신 불보(佛寶) 사찰로, 팔만대장경을 봉안한 법보(法寶) 사찰 해인사, 보조국사 아래 16명의 국사를 배출한 승보(僧寶) 사찰 송광사와 함께 한국의 삼보사찰(三寶寺刹)로 꼽힌다.

통도사는 신라 선덕여왕 15년(646년)에 당나라에서 유학하던 자장율사가 석가모니가 입었던 가사와 진신사리를 가지고 돌아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진다. 원래 통도사 터는 아홉 마리의 독을 품은 용이 사는 큰 연못이었는데 자장이 법력으로 이 용들과 싸워 여덟 마리를 떠나보내고 터를 지키겠다고 맹세한 한 마리를 위해 메우지 않고 남겨 놓은 곳이 현재의 구룡지라는 설화가 전해 내려온다. 네댓 평의 작은 연못이지만 아무리 기뻐도 물이 마르지 않는다고 한다.

통도사 가람배치의 중심은 단연 부처의 사리를 봉안한 금강계단(金剛戒壇)이다. 대웅전과 함께 국보 제290호로 지정돼 있다. 계단은 본래 승려가 계를 받는 곳으로, 금강계단 기운데 중 모양의 부도(사리탑)를 세우고 진신사리를 봉안하고 있다. 부처의 사리가 있기에 바로 붙은 대웅전에는 불상이 없다. 대웅전 안에서는 금강계단을 향해 뚫린 창으로 참배한다. 대웅전 사면에는 각각 '대웅전'(大雄殿), '대방광전'(大方廣殿), '금강계단'(金剛

戒壇), '적멸보궁'(寂滅寶宮) 편액이 걸려있다. '적멸'은 수행자의 궁극의 목표를 이르는 열반(涅槃)을 뜻하는 말로, 진신사리를 모신 전각을 적멸보궁이라 한다.

금강계단은 이 사찰에서 가장 신성한 곳으로, 아외임에도 신발을 벗고 참배해야 한다. 경주 지진 이후에는 사리탑 보존을 위해 참배를 규제하고 있다. 음력 초하루~초삼일, 음력 보름, 음력 18일(지장재일), 음력 24일(관음재일) 등 한 달에 여섯만 개방한다. 개방 시간도 오전 11시~오후 2시로 길지 않으니 참배하려면 여행 계획을 잘 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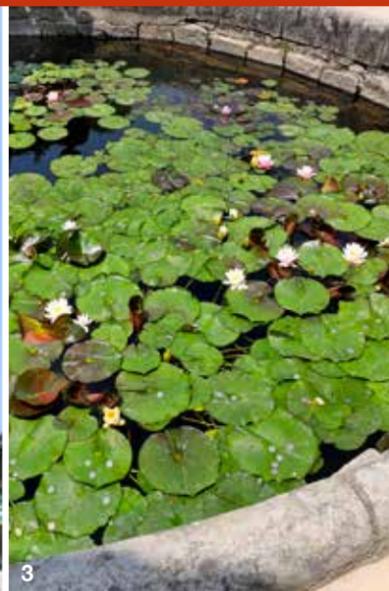
신라 시대 경주의 황룡사가 왕실귀족불교의 중심이었다면, 산중에 자리 잡은 통도사는 수행 불교의 중심이었다. 현재는 국내 8대 총림(叢林) 중 한 곳이다. 총림은 승려와 속인들이 배우기 위해 모인 것을 우거진 수풀에 비유한 말인데, 현재는 승려가 참선과 수행을 하는 선원(禪院), 경전 교육 기관인 강원(講院), 계율 전문교육 기관인 율원(律院) 등을 갖춘 종합수행도량을 말한다. 통도사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올해 하안거에 300여 명의 승려가 참여하고 있다.



1 서운암에서 관광객을 맞이하는 공작 2 대웅전과 금강계단 3 창건설화를 간직한 구룡지 4 경내를 지나는 스님



2



3



4



1, 2 통도사 템플스테이를 찾은 경남 지역 원어민 교사들
3, 4 다도 체험

마음의 소리 듣는 '템플스테이'

때 이른 폭염이 찾아온 6월의 어느 날, 경남 지역의 원어민 교사 30명이 통도사를 찾았다. 단출한 개량한복으로 제공된 수련복으로 갈아입고 땀을 가려 줄 밀짚모자를 쓰고 사찰을 둘러봤다. 학인(학생) 스님의 영어 안내에 귀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암자들이 있는 산 중턱을 향했다. 잘 닦인 포장길을 따라올라 막 공사를 끝낸 국제템플스테이관에 도착했다. 2층 체험관에서는 탁 트인 전망이 내려다보이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땀을 씻었다. 왼쪽으로는 초록빛이 짙어진 차밭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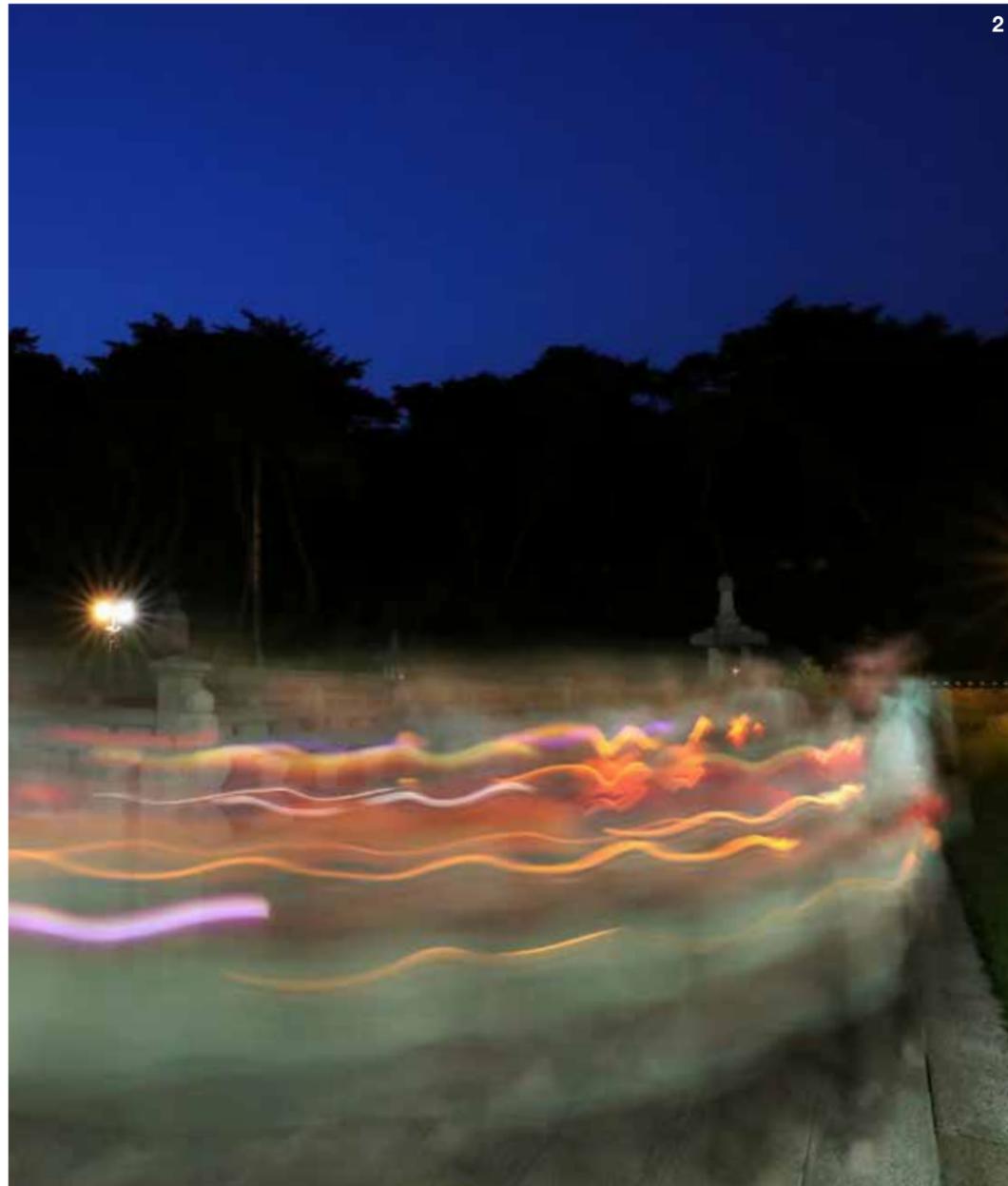
이곳에서 원어민 교사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다도(茶道)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했다. 불가에서는 차를 마시는 것을 수행의 하나로 본다. 차와 선이 한 맛이라는 다선일미(茶禪一味) 사상이다.

원어민 교사들이 자리 잡고 앉자 통도사의 다례교육기관인 선다회의 다인(茶人)들이 이들 앞에 노란 연꽃빛의 차와 떡이 곁게 담긴 작





1



2



3

- 1 직접 만든 꽃등을 들고 금강계단으로 향한다.
- 2 금강계단의 사리탑을 도는 참가자들
- 3 금강계단에서의 명상

은 쟁반을 놓았다. 일부는 다인의 사범이 시작되기도 전에 냉큼 잔을 비우고 떡을 맛보기도 했다. 하지만 이내 차를 내려내는 팽주와 팽주를 도와 손님에게 차를 내는 시자의 다례 사범을 조용히 지켜봤다. 이후에는 배운 대로 왼손으로 잔을 받치고 오른손으로 잔을 감싸 들어 올리고 색과 향을 먼저 음미한 뒤 세 번에 나누어 마셨다.

바닥에 앉아 저린 다리를 꿈지락거리며 인쇄했던 시간이 지나자 팽주의 자리에 앉아 기념사진을 찍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떠들썩한 시간도 잠시 허락됐다.

저녁 공양을 마치고 모여 앉은 이들은 탑돌이에 들고 갈 꽃등을 만들기 시작했다. 종이컵에 빨강, 노랑, 주황 연꽃잎을 붙인 뒤 초록색 잎으로 마무리했다. 학인 스님은 '사리탑이 아무리

영험하다 한들, 모든 기도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소원을 이루는 것은 결국 자신의 노력이다'라는 진지한 이야기를 쉬운 영어로 재미있게 전했다. 외국인 청년들은 웃음으로 답했다. 어둠이 내린 조용한 산사에서 컵등을 들고 줄지어 이동한 곳은 가장 신성한 곳, 금강계단이다. 각자 만든 꽃등 안에는 진짜 촛불 대신 건전지가 들어간 작은 조명을 켰다. 국보인 이곳에서 진짜 초를 켜다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가슴을 쓸어내린 일이 있었다고 한다. 신을 벗고 숨죽인 채 스님의 인도에 따라 사리탑을 돌았다. 한낮의 열기를 품은 따뜻한 바닥에 앉아 눈을 감았다. 각자 마음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다.



속리산의 '보물 창고'



제 대찰의 위용이 상실된 공간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국보 3점과 보물 13점에 지방유형문화재까지 두루 간직한 보물 창고다. 금강문과 사천왕문을 지나 대웅보전까지 곧게 이어진 길에는 국보 두 점이 나란히 자리한다. 팔상전(국보 제55호)은 현존하는 유일한 목탑이자, 탑 중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다. 내부 벽에 부처의 일생을 여덟 장면으로 그린 팔상도가 있다. 창건 당시 처음 지어졌고 해공왕 12년(776년)에 진표율사가 중창했으나 정유재란 당시 불타고 조선 인조 2년(1624년)에 복원한 것을 1968년 해체 수리했다. 팔상전과 대웅보전 사이의 쌍사자석등(국보 5호)은 신라 성덕왕(720년) 때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두 마리의 사자가 가슴을 맞대고 마주 서서 뒷발로 복련석(연꽃을 뒤집어 놓은 모양)을 딛고 앞발로 양련석(연꽃이 하늘을 향해 피어있는 모양)을 받치고 있다. 통일신라 석등은 주로 8각 기둥을 사용하는데 두 마리의 사자가 이를 대신한 것은 매우 획기적인 시도라는 평이다. 같은 시기에 제작된 대웅보전 바로 앞의 사천왕석등(보물 제15호)은 석등의 전형인 8각 기둥 형태다. 불을 밝히는 화사석의 8면 중 4면은 창을 내고 4면에 불법을 수호하는 사천왕상을 새겼다. 이층으로 된 대웅보전(보물 제915호)은 무량사 극락전, 화엄사 각황전과 함께 국내 3대 불전으로 꼽힌다. 팔상전과 함께 인조 2년에 다시 지으면서 소조삼불좌상(보물 제1360호)을 조성했다. 앉은키가 5m가 넘는 법신(法身) 비로자나불을 가운데 두고 왼쪽이 보신(報身)인 노사나불(아

세조에게 예를 표한 정이품 소나무를 지나 법주사로 향한다. 사찰을 찾는 사람들을 부처님보다 먼저 풀어주는 건 숲길이다. 모든 사찰의 숲길이 반갑고, 법주사로 향하는 오리숲길도 그렇다. 나이 많은 소나무와 느티나무, 참나무, 고로쇠나무, 물푸레나무, 단풍나무, 돌배나무가 만든 터널을 느릿느릿 걸으면서 즐기지 못하고 차를 타고 지나가는 것이 못내 아쉽다. 속리산이 품은 법주사는 부처님의 법(法)이 머무는(住) 절이라는 뜻이다. 의신조사가 천축(인도)에서 흰 나귀에 불경을 싣고 돌아와 머물렀다 하여 불은 이름이다. 법주사 경내에서 가장 먼저 눈을 사로잡는 것은 단연 높이 33m의 금동

미륵대불. 법주사를 상징하는 화려한 불상이지만, 1990년대 청동불로 세운 것을 2002년 순금으로 덧씌웠다. 녹과 오염물질을 벗겨내고 다시 금박을 입히는 개금 작업도 세 차례나 있었다. 애초 신라 시대 세워졌던 금동 불상은 구한말 경북궁 축조자금 조성을 위해 해체됐고, 해방 이후에는 시멘트로 만든 불상이 같은 자리에 있었다. 쓸쓸한 마음은 어쩐지 텅 빈 듯한 절 마당을 보면서 다시 찾아왔다. 법주사는 신라 진흥왕 14년(553년) 의신조사가 창건한 이후 고려와 조선 왕실의 후원을 받으며 번성해 60여 동의 건물과 70여 개의 암자를 거느렸던 대찰이었다. 그러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두 차례나 전소하다시피 했고, 이후 30여 동의 건물만이 다시 지어졌다. 텅 빈 듯한 마당은 실



석련지, 금동미륵대불, 대웅보전, 팔상전, 당간지주 등 법주사의 상징이 한눈에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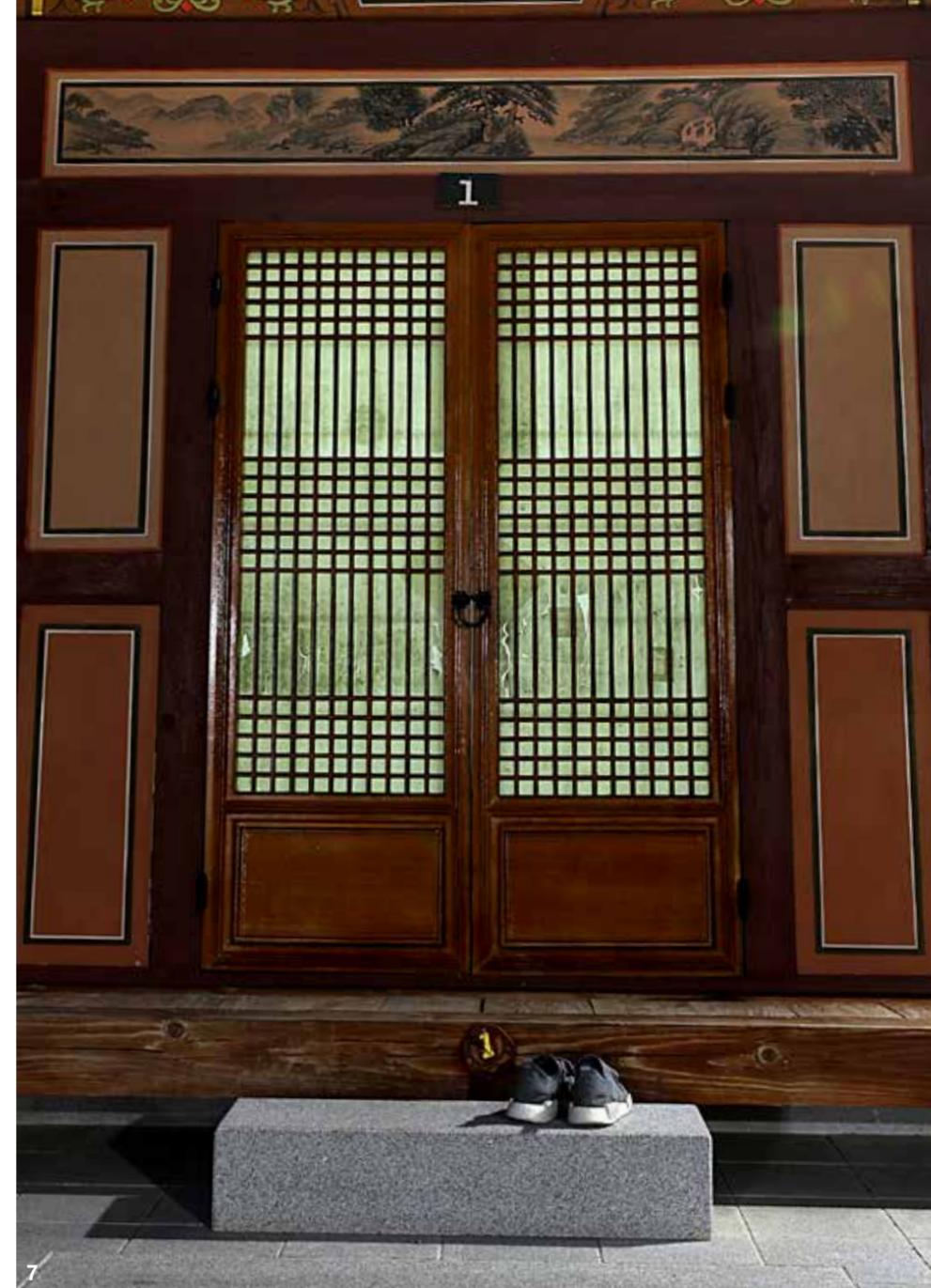


미타불), 오른쪽이 화신(化身)인 석가모니불이다.
 6m 높이의 바위에 돌을새김으로 조각된 마애여래의좌상(보물 제216호)은 연꽃 위에 걸터앉아 연꽃잎 위에 발을 올려놓은 보기 드문 모습이다. 불상의 오른쪽에는 의신조사가 불경을 실어오는 모습, 진표율사 앞에 우는 소 등 창건 설화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암각화가 남아 있다. 돌로 만든 연못인 석련지(국보 제64호)와 신도 3만 명이 먹을 장국을 끓이고 임진왜란 당시 승병이 이용했다는 직경 2.87m의 철술(보물 제1413호), 향로를 머리에 이고 있는 희견보살상(보물 1417호) 등 눈 닿는 곳마다 보물이다.

훼손 흔적까지 고스란히 남은 문화재

'문화재 창고'인 이곳에서 마음이 오래 머문 곳은 따로 있다. 성낙원 문화관광해설사가 안내한 마당 한쪽 구석에는 기단석 등 원형이 훼손된 유물이 줄지어 있었다. 사찰과 주변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했다. 일본 강점기 수많은 유물이 도난당했고, 미처 가져가지 못한 것들은 훼손해 놓았다고 성 해설사는 설명했다. 쌍사자석등은 사자 꼬리가 잘려나갔고 시커멓게 그을리거나 대충 땀질이 된 흔적이 남았고, 희견보살상의 얼굴 부분은 심각하게 파손돼 있으며,

1 현존하는 유일한 목탑인 팔상전 2 희견보살상 3 사천왕석등 4 쌍사자석등 5 석련지 6 마애여래의좌상 7 템플스테이의 밤



우아한 석련지 상부 난간석도 일부만 남았다. 사찰의 상징이지만 이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철당간도 남아있는데, 깃대 역할을 하는 당간을 받치는 지주만 고려 시대의 것이다. 당간은 찰(刹)이라고도 하는데, 절을 사찰이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당간, 찰이 있어서다. 고려 시대에는 높이가 16m에 달했으나 국가 재정을 마련한다는 대원군의 명으로 사찰의 금속물을 수거하며 파괴됐다. 순종 때 22m 높이로 복원했고 1972년 보수했다. 마애여래의좌상 인근의 바위에 새겨진 글씨가 현재 이 당간 아래에 남아 있는 글씨는 모두 당대의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의 이름으로, 귀한 문화재와 자연을 훼손한 것이라고 성 해설사는 목소리를 높였다.

보리수 아닌 찰피나무 두 그루
 조금은 쓸쓸한 사찰의 마당을 멋스럽게 채워주는 것은 대웅보전 앞 보리수 두 그루다. 사실 이 보리수는 부처가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그 보리수가 아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며 전문가들이 조사한 결과 찰피나무로 밝혀졌다. 인도의 보리수는 뽕나무과 무화과속의 활엽수로 열대지방에서만 자라므로 국내에 들여올 수 없었다. 중국과 한국에서는 보리수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똑 닮은 피나무아과 피나무속의 보리자나무나 찰피나무, 염주나무로 불리는 모감주나무 등을 심고 보리수라 부르고 그 열매로 염주를 만들었다 한다. 천왕문 앞에서 있는 27m 높이의 전나무 두 그루도 든든하다. ①

INFORMATION

템플스테이(Temple stay)



템플스테이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해 시작한 사찰 체험 프로그램이다. 일시적으로 급증한 숙박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이제는 외국인인 물론

불자가 아닌 내국인들까지 연령과 직업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문화 체험과 자연 속의 휴식을 즐기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지금까지 참가 인원은 약 200만 명.

전국 120개 사찰에서 운영하는 템플스테이는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템플스테이 공식 홈페이지(www.templestay.com)에서 예약할 수 있다. 서울 조계사 앞에 있는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홍보관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체험형은 각 사찰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도량 암자 돌아보기, 스님과의 차담, 요가 명상, 108배, 연등·염주 만들기, 문화유적 탐방, 산행이나 산책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단체의 요청에 따라 프로그램이 마련되기도 한다. 휴식형은 공양 시간만 지키면 대부분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다.

'아생여당'(我生如堂)이라는 템플스테이 브랜드에 맞춰 사찰의 환경과 역량에 따라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

공하기도 한다. 위로를 주제로 한 아이(我)는 보은 법주사를 비롯해 김제 금산사와 영동 반야사, 하동 쌍계사에서 운영한다.

건강을 주제로 한 생생(生生)은 동해 삼화사, 양평 용문사, 구례 천은사에서 참여할 수 있다. 비움을 주제로 한 여여(如如)는 해남 미황사와 예산 수덕사에서, 꿈을 주제로 한 당당(堂堂)은 해남 대흥사, 양양 낙산사, 인제 백담사, 용인 법륜사 등에서 운영한다.

템플스테이 참가 비용은 1박에 5만~7만원선. 수련복과 이불을 제공한다. 세면도구는 따로 준비해야 한다. 사찰이 주로 산에 있고 주변 암자들을 둘러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운동화나 등산화를 준비해야 한다. 산속에서는 기온이 많이 떨어지니 수련복에 겹쳐 입을 옷을 가져가는 것이 좋다.

기본 사찰 예절



사진 / 대흥사 제공

- 스님을 만나면 두 손을 모으고 허리를 숙이는 합장 인사를 한다.

- 법당을 출입할 때는 정문이 아닌 양옆의 문으로 출입한다. 발뒤꿈치를 들고 소리 나지 않게 걸어야 한다.

- 새벽 예불이나 108배 같은 수행 프로그램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절을 하기 부담스럽다면 조용히 앉아 있어도 된다. 산사의 새벽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새벽 예불이나 건강에 좋은 108배는 종교와 상관없이 체험해 볼 만한 것으로 권하고 있다.

- 사찰은 수행 공간이므로 흡연, 음주, 고성방가는 당연히 금지된다. 너무 화려하거나 노출이 심하지 않은 단정한 차림으로 예의를 지켜야 한다.

세계유산 산사의 템플스테이



대흥사

차의 성지인 만큼 차 문화 체험을 빼놓을 수 없다. 직접 탄 여린 찻잎을 덕여 녹차를 만드는 체험을 하려면 4~5월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운이 좋으면 일지암 누마루나 정자에서 차를 마시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대학원에서 요가를 공부하는 김경숙 템플스테이 팀장이 이끄는 요가 명상도 인기다. 몸이 뻣뻣하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무리한 동작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산행을 다녀온 뒤나 오랜 이동 시간의 피로는 물론, 평소 불편했던 몸의 구석구석을 부드럽게 풀어주면 눈이 맑아지는 느낌이다. 황토로 지은 템플스테이 숙소는 방마다 깔끔한 욕실 겸 화장실, 에어컨을 갖추고 있어 쾌적하다.

통도사

통도사 템플스테이의 하이라이트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금강계단에서의 명상과 탑돌이다. 경주 지진 이후 사리탑 보존을 위해 참배 날짜와 시간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해가 진 뒤 직접 만든 꽃등을 들고 사리탑을 돌며 기도하고 명상하는 것은 체험형 템플스테이 참가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참가 단체의 요청에 따라 다도 체험, 천연 염색 체험 등 특별 프로그램이 마련되기도 한다. 절 입구부터 장관을 이루는 소나무 숲길 산책은 필수 코스다. 템플스테이 숙소가 현재는 설법전 지하에 있는 것이 아쉽지만, 최근 암자들이 있는 산 중턱에 국제템플스테이관을 완공해 하반기부터 이곳으로 옮겨 진행할 예정이다.



법주사

속리산에서 내려와 합쳐지는 물길 사이에 오붓하게 자리한 템플스테이 숙소가 아늑하다. 밤새 나무를 때 방을 데워 더욱 포근하다. 법주사 템플스테이에서는 세조길 산책은 빼놓을 수 없다. 법주사에서 시작해 물길을 따라 세심정까지 이어지는 2.62km의 평탄한 산책길로, 속리산 둘레길 탐방객의 절반 이상이 몰리는 인기 코스다. 아침 공양 뒤 이른 아침 산책을 추천하는 이유다. 세조가 스승인 신미대사가 있는 복천암으로 순행 왔던 역사적 사실을 이름 따왔다. 세조가 지병인 피부병을 고쳤다는 목욕소가 있다. 수원지에는 멸종위기 1급인 수달과 남생이, 삿, 담비가 산다. 초여름의 숲도 좋지만 단풍철의 화려한 아름다움은 물론이고 비 그친 후의 운치가 그만이라고 한다.

